

대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최 은 정
경기대학교
지식정보서비스대학
청소년학전공 강사

김 유 현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박사과정

김 청 송[‡]
경기대학교
지식정보서비스대학
청소년학전공 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을 매개로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46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총 438부(남학생 127명, 여학생 311명)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유능성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각 변인들의 관계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연구모형과 대안모형(경쟁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가정 내 의사소통이 긍정적이며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을 위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개발과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과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추후연구의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대인관계유능성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청송, (311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고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지식정보서비스대학 청소년학전공 교수, Tel: 031-249-9367, E-mail: drcsk@kyonggi.ac.kr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다 건강하고 적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개인의 심리내적 변인은 무엇인가? 많은 연구자들은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심리 내외적인 변인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강화시키려는 다양한 방법과 기법들을 연구해왔다. 정신의학에서 대인관계이론을 구축한 선구자로 알려진 Sullivan(1953)도 인간이 느끼는 모든 불안의 근원이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의사소통은 인간 존재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정신적 기능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라는 말은 ‘공동’ 또는 ‘공통성’을 의미하는 라틴어 ‘communis’를 어원으로 하고 있듯이, 둘 이상의 사람이 언어적·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상호간에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 느낌, 태도, 의견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대인관계의 순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의사소통은 ‘사람들 간에 생각이나 감정 등을 교환하는 총체적인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부모와 자녀 역시 서로 간에 언어적이며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게 되며,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Felson & Zielinski, 1989).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볼 수 있다(Rosenberg, 1965). Branden(1969)은 자아존중감 욕구의 충족 여부는 삶과 죽음을 가늠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아존중감의 형성 과정과 그 수준을 파악하는 문제는 오늘날에도 인간발달의 주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여러 선행연구들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의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김중희, 2018; Kernis, Brown, & Brody, 2000).

정서(emotion)는 화·노·애·락의 감정으로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감정을 뜻한다. 그러므로 정서는 개인의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기준이며, 동시에 성공 또는 실패를 예측하는 자질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삶을 행복과 희망으로 몰고 가는 것도, 고통스럽고 부적응적인 상태로 몰고 가는 것도 모두 개인의 정서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Salovey와 Mayer(1990)는 개인의 정서처리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일반지능과 달리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정서지능은 정신건강, 적응과 삶의 만족, 대학생활의 적응, 직업적 성공, 원만한 대인관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서지능은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 사회생활에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나름대로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반면에, 정서지능이 낮은 청소년들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예: 흡연, 음

주, 성행동 등)이나 위험한 행동을 더 잘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Resurreccion, Slaguero, & Ruiz-Aranda, 2014). 한편, 정서지능은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변인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유문숙, 이은숙, 유미애, 2012; 이현경, 2009; Barnes & Olson, 1982).

한편, 인간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일생동안 끊임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이어간다.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의 특성과 성질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이며, 그 과정은 대인관계를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맺을 수 있는 능력인 대인관계유능성에 달려 있다. 대인관계유능성(interpersonal competence)은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Spitzberg & Cupach, 1989). 이에 대인관계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내적 변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이와 같은 변인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그리고 정서지능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대학생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공존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에 대학생들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는가의 문제는 이후의 인생경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학생들이 대인관계를 잘 하면서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준비해나가야 하는 것은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다. 또한 대학생은 발달특성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형성과 유지가 그들의 심리적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생활 시기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의 방향과 질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대인관계유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학생활의 적응성이 높고, 이후 사회생활에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로 맺으며 보다 적응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대인관계유능성을 다루는 여러 선행연구들은 나름대로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이나 영향력 및 상관관계 등의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Bande, Fernandez-Ferrin, Varlea, & Jarmillo, 2015).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장해순, 강태완, 2005; 조민희, 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정서지능간의 관계(이은경, 2014; 장경림, 김신영, 2017),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김반야, 2015; 김혜진, 2019),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김현주, 정미영, 2015; 정효주, 정향인, 2012),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과의 관계(김경미, 2017; 최운선, 2019),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이민선, 채규만, 2012; 김정호, 강기노, 나수양, 2016), 정서지능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강수정, 유금란, 2016; 이수미, 조정자, 김혜리, 2009),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김종희, 2018; 변유정, 2012),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정서지능 및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유문숙, 이은숙, 유미애, 2012; 이현경, 2009)로 분류해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의 각 변인에 대한 관련성을 살펴보면 첫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대인관계유능

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정서지능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정서지능의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 역시 대인관계유능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선정했던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대인관계유능성이라는 각 변인들의 관련성에 주목하였고,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기초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면 부분매개 역할로 작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매개 역할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대인관계유능성 등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이 매개하는가?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6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여 그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 30부를 제외하고 최종 43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127명(29%)이었고, 여학생은 311명(71%)이었으며,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PACS)를 민하영(1991)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에 있어 긍정적 측면인 개방형 정도와 부정적 측면인 문제형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의사소통(각각 20문항씩 40문항)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38)

		성 별		빈 도(%)
		남학생	여학생	
학년	1학년	37	97	134(30.6)
	2학년	38	93	131(29.9)
	3학년	33	72	105(24.0)
	4학년	19	49	68(15.5)
전 체		127명 (29%)	311명 (71%)	100%

본 연구에서는 문제형 의사소통 문항(부모 각각 10문항씩으로 모두 짝수 문항)의 응답은 역으로 채점하여 개방형 의사소통 문항의 응답점수와 합산하여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총점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 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의사소통 척도의 총점이 낮을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하영(1991)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모 개방형 의사소통 Cronbach's α 는 .90, 모 문제형 의사소통 .88, 부 개방형 의사소통 Cronbach's α .90, 부 문제형 의사소통 .87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단일요인을 측정하는 총 10문항의 Likert형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문항(3, 5, 8, 9, 10번 문항)은 역채점하여 긍정문항과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10~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소선숙(201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정서지능.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Wong과 Law(2002)가 개발한 WLEIS(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신은선(201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네 개의 차원 즉, 자기정서 인식(1, 2, 3, 4번 문항), 타인정서 인식(5, 6, 7, 8번 문항), 정서활용(9, 10, 11, 12번 문항), 정서조절(13, 14, 15, 16번 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원 당 4개의 문항씩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형 7점 척도이며, 총점은 16점에서 112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Cronbach's α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89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 별로는 자기정서이해 .88, 타인정서이해 .87, 정서활용 .87, 정서조절 .88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Buhrmester, Furman, Wittenberg와 Reis (1988)가 제작한 대인 유능성 질문지(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한나리와 이동귀(2010)가 한국 대학생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K-ICQ)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형 5점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유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하위요인은 관계 형성 및 개시(8문항),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7문항), 타인에 대한 배려(7문항), 갈등관리(6문항), 적절한 자기개방(3문항)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나리와 이동귀(2010)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88이었고, 하위요인은 각각 .90, .83, .78, .74, .63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93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관계형성 및 개시 .89,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83, 타인에 대한 배려 .84, 갈등관리 .79, 적절한 자기개방 .63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한 대학교

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담당 교수의 협조를 구하고 연구자가 직접 강의실로 들어가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25분 정도에 걸쳐 작성한 다음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468부 중에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미 응답한 30부를 제외하고 최종 438부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

전체 변인들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대인관계 유능성 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설문 문항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

항 내적합치도(Cronbach's *a*)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기술통계를 통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 보았다. 그리고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MOS 20.0을 사용하여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Shor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상관관계

표 2에서 각 변인들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독

표 2. 변인간의 상관관계

(N=438)

	1	1-1	1-2	2	3	3-1	3-2	3-3	3-4	4	4-1	4-2	4-3	4-4	4-5
1	-														
1-1	.93**	-													
1-2	.93**	.74**	-												
2	.44**	.41**	.41**	-											
3	.36**	.35**	.32**	.64**	-										
3-1	.32**	.31**	.29**	.51**	.80**	-									
3-2	.16**	.17**	.14**	.20**	.59**	.44**	-								
3-3	.36**	.36**	.31**	.65**	.80**	.53**	.26**	-							
3-4	.20**	.18**	.19**	.45**	.73**	.40**	.15**	.48**	-						
4	.33**	.33**	.29**	.51**	.58**	.48**	.35**	.50**	.36**	-					
4-1	.23**	.24**	.19**	.49**	.50**	.38**	.32**	.47**	.30**	.85**	-				
4-2	.27**	.27**	.24**	.33**	.36**	.38**	.18**	.35**	.16**	.73**	.54**	-			
4-3	.33**	.31**	.31**	.41**	.50**	.45**	.41**	.41**	.23**	.79**	.79**	.61**	-		
4-4	.19**	.17**	.19**	.34**	.47**	.32**	.23**	.32**	.49**	.66**	.66**	.43**	.60**	-	
4-5	.22**	.24**	.18**	.38**	.38**	.30**	.23**	.33**	.24**	.75**	.75**	.57**	.40**	.31**	-
M	3.69	3.61	3.78	3.76	4.91	5.25	5.33	4.69	4.37	3.29	3.24	3.17	3.70	3.51	2.82
SD	.68	.73	.74	.70	.81	1.01	.97	1.22	1.22	.59	.88	.80	.65	.67	.90

- 1 부모-자녀 의사소통 합, 1-1 개방형 의사소통, 1-2 문제형 의사소통
 - 2 자아존중감 합
 - 3 정서지능 합, 3-1 자기정서이해, 3-2 타인정서이해, 3-3 정서활용, 3-4 정서조절
 - 4 대인관계유능성 합, 4-1 관계형성, 4-2 권리주장, 4-3 타인배려, 4-4는 갈등관리, 4-5는 자기개방
- ***p* < .01.

립변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종속변인인 대인관계유능성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r=.33, p<.01$),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r=.44, p<.01$)과 정서지능($r=.36, p<.01$)과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r=.64, p<.01$),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유능성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r=.51, p<.01$), 정서지능은 대인관계유능성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r=.58, p<.01$).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변인들의 상관결과에 의하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대인관계 유능성 수준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지능과 대인관계 유능성 수준이 높아지며, 정서지능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대인관계유능성 등에 대해 정상분포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여 표 3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측정 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을 때,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킨다는 제언(Finch, West, & MacKinnon, 1997)에 따라 왜도와 첨도를 계산한 결과, 모든 변수들의 절대 값이 2를 넘지 않아 정상분포가정을 충족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문항(item parcels)의 각 꾸러미들이 잠재변인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해당 잠재변인을 같은 수준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Russel, Kahn, Spoth, Altmaier(1998)의 주장에 근거하여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 변인에 대하여 단일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표 3.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합	3.69	.68	-.25	-.49
개방형 의사소통	3.61	.73	-.33	-.16
문제형 의사소통	3.78	.74	-.33	-.59
자아존중감 합	3.76	.70	-.37	-.35
자아존중감 1	3.72	.67	-.18	-.40
자아존중감 2	3.80	.77	-.46	-.29
정서지능 합	4.91	.81	-.02	-.20
자기정서이해	5.25	1.02	-.52	.14
타인정서이해	5.33	.97	-.55	.48
정서활용	4.69	1.23	-.25	-.20
정서조절	4.37	1.23	-.13	-.10
대인관계유능성 합	3.29	.59	.17	-.17
관계형성	3.25	.88	-.06	-.65
권리주장	3.17	.80	-.14	-.38
타인배려	3.71	.65	-.15	-.39
갈등관리	3.51	.67	-.22	-.11
자기개방	2.82	.90	.15	-.30

시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요인 부하량의 절대 값이 높은 순서대로 각 문항별 순위를 매겨 측정모형과 적합도 지수를 그림 1 및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와 같다. 상대적

합도 지수 TLI(.868), 절대적합도 지수 CFI(.900), RMSEA(.106)로 나타났으며, 정서지능의 측정변인 중의 하나인 타인정서이해의 요인 부하량이 .39로 나타나서 적합도 지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인정서이해를 제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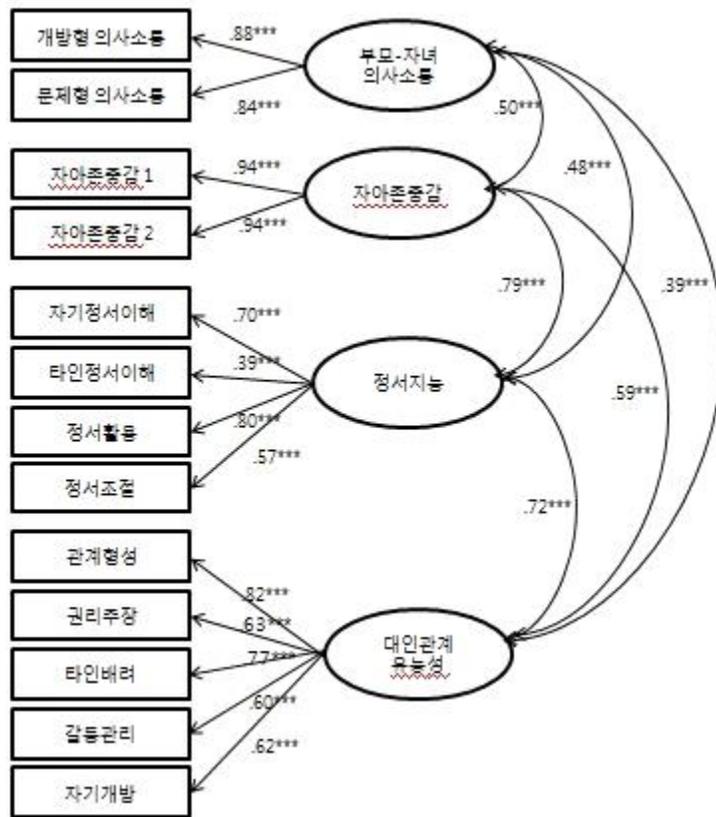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N=438)

	χ^2	df	p	TLI	CFI	RMSEA (90%신뢰수준)
측정모형	346.048	59	.000	.868	.900	.106 (.095-.116)
수정모형	257.783	48	.000	.899	.923	.099 (.088-.112)

수정모형으로 연구모형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수정모형은 상대적합도 지수 TLI(.899), 절대적합도 지수 CFI(.923), RMSEA(.099)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된 변인들의 관계성 검증을 위해 각각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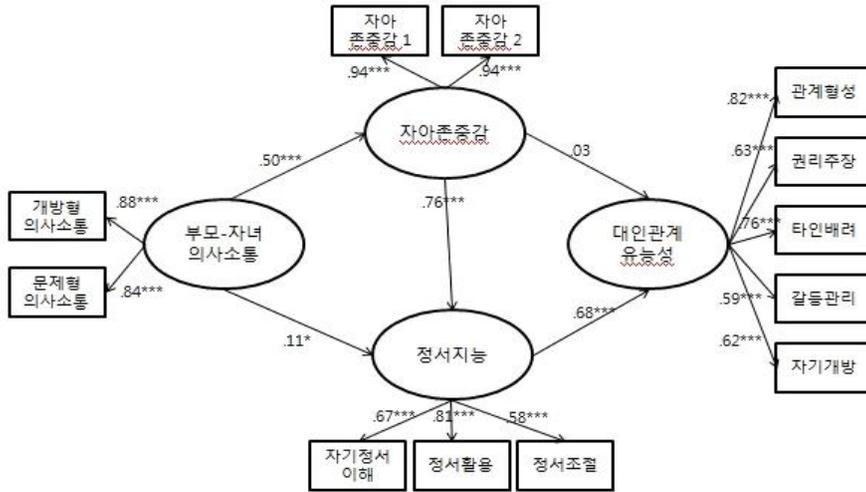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완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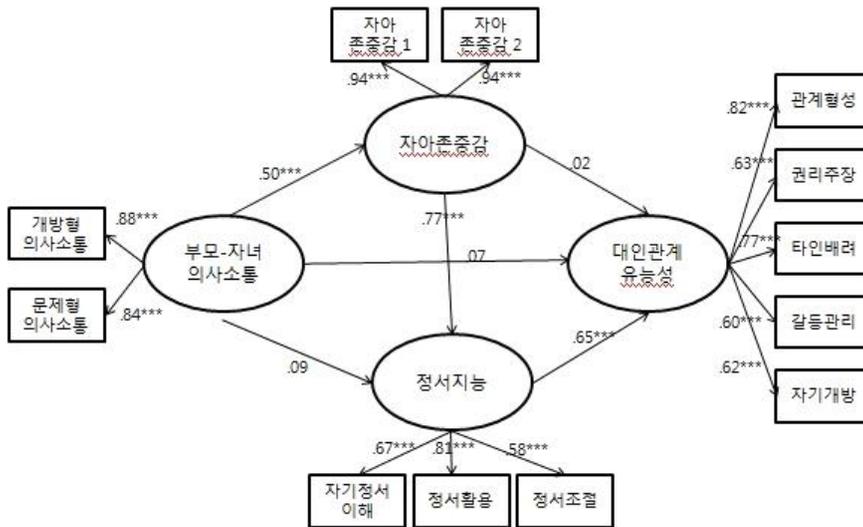


그림 3. 대안모형(부분매개모형)

구모형과 대안모형(경쟁모형) 두 개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순차적 매개모형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완전매개)과 대안모형(부분매개)은 그림 2 및 그림 3과 같고, 구체적인 적합도 지수는 표 5와 같다.

χ^2 차이 값을 통해 두 모형 간을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완전매개)과 대안모형(부분매개)의 경우 자유도 1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계 값인 3.84이상의 차이가 나와 함에도 불구하고, χ^2 차이 값이 1.292로 나타났기 때문에 간명도를 고려한 예측적합도 지수 비교를 통해 채택을 하여야 한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예측적합도 지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는 연구자의 표본과 동일한 크기를 가지면서 표본이 추출된 전집과 동일한 전집으로부터 무선으로 추출되었다

고 가정한 가상적 표본에서 모형이 적합한가를 평가하는 것이다(Kline, 1998). 여기에서도 AIC 값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완전매개모형)이 더 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안모형: 317.783, 연구모형: 317.175). 이를 통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대인관계유능성 간의 경로계수는 표 6과 같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과($\beta=.50, p<.001$), 정서지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beta=.11, p<.05$), 자아존중감은 정서지능($\beta=.76, p<.001$), 정서지능은 대인관계유능성($\beta=.68,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검증 결과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는 표 7과 같다.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을 순차적으로 거쳐 대

표 5.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순차적 매개효과 연구모형 및 대안모형 적합도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완전매개)	257.783	48	.000	.895	.923	.100
대안모형 (부분매개)	259.175	49	.000	.897	.923	.099
연구모형 - 대안모형	1.292	1				

표 6.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순차적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부모-자녀 의사소통 → 자아존중감	.51	.50	.05	9.41***
부모-자녀 의사소통 → 정서지능	.13	.11	.06	2.23*
자아존중감 → 정서지능	.85	.76	.08	10.46***
자아존중감 → 대인관계유능성	.03	.03	.13	.27
정서지능 → 대인관계유능성	.70	.68	.13	5.30***

주. *** $p < .001$, * $p < .05$.

표 7.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간접효과 검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0% 신뢰구간)	총효과
부모-자녀 의사소통 → 자아존중감	.50		.50
부모-자녀 의사소통 → 자아존중감 → 정서지능	.11	.38** (.31 ~ .45)	.49
부모-자녀 의사소통 → 자아존중감 → 정서지능 → 대인관계유능성	.00	.35** (.27 ~ .43)	.35
자아존중감 → 정서지능	.76		.76
정서지능 → 대인관계유능성	.68		.68
자아존중감 → 정서지능 → 대인관계유능성	.03	.52** (.35 ~ .74)	.55

** $p < .01$.

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신뢰구간을 추정하였다. 표 7을 보면,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정서지능의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eta = .38, p < .01$),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경로에서도 정서지능의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52, p < .01$). 그리고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경로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이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beta = .35, p < .01$), 이는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이 순차적인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을 매개로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경로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한 대학

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43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상관분석, 문항 내적합치도, 기술통계, 그리고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매개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AMOS 20.0을 사용하여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고, Shor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대인관계유능성의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종속변인인 대인관계유능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r = .33, p < .01$),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r = .44, p < .01$) 및 정서지능($r = .36, p < .01$)과도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r = .64, p < .01$),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유능성도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r = .51, p < .01$), 정서지능은 대인관

계유능성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r=.58, p < .01$).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결과(변유정, 2012)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지능과 대인관계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유문숙, 이은숙, 유미애, 2012)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적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 각각이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유능성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고, 긍정적이며 건강할수록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대인관계유능성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이 순차적인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연구모형(완전매개모형)이 채택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완전매개모형)과 대안모형(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이 순차적인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 정서지능과 대인관계유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정서지능의 경로에서 자아존중감

의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경로에서도 정서지능의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이 중요한 심리내적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을 매개로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함의를 지닌다.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을 매개변인으로 함께 설정하여 부모-자녀-의사소통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들 변인들 간의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이 순차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추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데 있어 유아나 아동 또는 중·고등학생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생에게 중요한 대인관계유능성을 추가하여 이들 변인간의 관련성을 연구해본 것은 대학생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연구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들을 대학생의 자기보고식 연구방법을 통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측정과 함께 면담이나 다양한 사례연구 또는 행동관찰 등의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인간발달의 특성상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유형과 남녀의 반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심리내적 요인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심리내적 변인이나 환경적 요인을 탐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추후연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건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심리내적 변인을 이중 매개로 설정하여 그 경로 양상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담현장에서 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는 상담이 요구될 때 부모와 자녀와의 촉진적이며 건강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을 높여줄 수 있는 상담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 점도 본 연구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강수정, 유금란 (2016).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적응적 유머스타일의 매개효과

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4), 275-294.

국립특수교육원 (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

김경미 (2017). 유아-교사 관계와 유아의 정서지능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2(1), 27-47.

김반야 (2015). 관계적 인간의 형성: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자녀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호, 강기노, 나수양 (2016).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긍정, 부정감정을 통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7), 199-208.

김중희 (2018). 어머니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주, 정미영 (2015).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가정간호학회지, 22(2), 228-236

김혜진 (2019).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하영 (1991). 청소년의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유정 (2012).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소선숙 (2011).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및 학교적응에 대한 통합모형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은선 (2017). 에니어그램기반 사람돌봄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서지능, 불안 및 돌봄행위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문숙, 이은숙, 유미애 (2012). 청소년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서지능과 대인관계능력간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6(2), 252-262.

이민선, 채규만 (201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 인지행동치료, 12(1), 63-75.
- 이수미, 조경자, 김혜리 (2009).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6(3), 131-147.
- 이은경 (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경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의사소통 및 애착과 사회관계성향과의 관계: 정서지능을 매개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림, 김신영 (2017).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수준과 정서지능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발달지원연구*, 6 (2), 155-166.
- 장해순, 강태완 (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3(2), 104-130.
- 전병재 (1974). 자아개념 측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1), 107-130.
- 정효주, 정향인 (2012). 3년제 간호대학 신입생의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1(3), 188-196.
- 조민희 (2007).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운선 (2019).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정서지능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나리, 이동귀 (2010).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37-156.
- Bande, B., Fernandez-Ferrin P, Varlea, J., & Jarmillo, F. (2015). Emotions and salesperson propensity to leave: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silienc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44, 142-153.
- Barnes, H. L.,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randen, N. (1969). *The psychology of self-esteem*. Los Angeles: Nash Publishing Corporation.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 Felson, R. B., & Zielinski, M. A. (1989). Children's self-esteem and parent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27-735.
- Finch, J. F., West, S. G., & MacKinnon, D. P. (1997). Effects of sample size and nonnormality on the estimation of mediated effects in latent variable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2), 87-105.
- Kernis, M. H., Brown, A. C., & Brody, G. H. (2000). *Journal of personality*, 68(2), 225-252.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구조방정식모형-원리와 적용(이현숙, 김수진, 전수현 공역). 서울: 학지사.
- Resurreccion, D. M., Slaguerro, J. M., & Ruiz-Aranda, D. (2014).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in adolescence: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Adolescence*, 37, 461-47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sse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8.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hort, P. E., & Blo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or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445.
- Spitzberg, B. H., Cupach, W. R. (1989). Loneliness and relationally competent communic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 384-402.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Wong, C., & Law, K. S. (2002). The effect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 243-274.

원고접수일: 2020년 7월 29일

논문심사일: 2020년 8월 12일

게재결정일: 2020년 8월 24일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s

Eun-Jung Choi Yoo-Hyun Kim Chung-Song Kim
Kyo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ath of college students' parent-child communication to interpersonal competency through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To this end, a questionnaire was surveyed with a total of 468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in Gyeonggi-do, and a total of 438 data(127 male and 311 female)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 First, parent-child communication predicted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atically, and the higher the level of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 higher the level of interpersonal competence. Second,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by setting a research model and an alternative model(competition model).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communication within the home is crucial for the formation of a positive and smooth interpersonal relationship, to develop and improve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which impact interpersonal competence, it was found that healthy parent-child communication must precede. Based on the purpose and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 of future studies are discussed.

Keywords: parent-child communication, self-Esteem, emotion intelligence, interpersonal competency